종지협, 예루살렘·바티칸서 소통·상생 행보

9월 13~21일 이웃종교 성지순례

종지협 차원 상호이해 위한 교류
원행 스님 "공존 위한 지혜 필요"
교황 만나 종교 초월 평화도 발원


종지협이 9월 13~21일 이웃종교 성지순례 일환으로 이스라엘과 바티칸을 방문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한국 7대 종교 수장들이 개신교 기반인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가톨릭 총본산 이탈리아를 방문해 종교간 벽을 허무는 화합과 상생의 교류 활동을 펼쳤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원행)는 9월 13일부터 '이웃종교 성지순례' 를 위해 이탈리아로 출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본 후 이탈리아 아시시, 시에나, 로마 등을 찾았다. 프란치스코 대성당과 가타리나 성녀의 생가,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시국 등을 둘러본 후 9월 21일 귀국했다.

첫 공식일정은 9월 14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0km 가량 떨어진 '베들레헴' 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기독교 성지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간 분쟁지역이기도 하다. 베들레헴 시장에게 환대를 받은 원행 스님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종교계뿐 아니라 베들레헴도 자유와 평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베들레헴이 원하는 '평화' 의 지향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9월 15일에는 라틴 교회 가톨릭 대주교 주교관을 찾아, 예루살렘 라틴 교회 가톨릭 총대주교인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Pierbattista Pizzaballa) 대주교와 환담했다.

이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고 묻힌 '예수 무덤 성당' 을 시작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둔 '골고다 언덕' , 예수가 승천한 올리브산 '예수 승천 경당' , 예수가 예루살렘의 붕괴를 예언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는 '눈물 성당' , 피땀 흘려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갯세마니 성당' 등을 차례로 찾았다.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기 전 마지막 일정은 '통곡의 벽' 이었다. 9월 16일 방문한 통곡의 벽은 유대교 성지로, 로마인에 의해 파괴되고 서쪽 벽만 남았다.

원행 스님은 "척박한 기후와 다양한 민족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지극한 모습으로 참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더 큰 불행이 오지 않게 하는 노력도 엿볼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종교 지도자들의 무거운 책임도 느꼈다. 종교를 떠나 누구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세계 평화, 모든 인류가 공존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9월 20일에는 이웃종교 성지순례 일환으로 가톨릭 성지를 순례하던 중,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저 '마르따의 집' 앞에서 진행된 이번 만남은 종교를 초월해 세계평화를 함께 발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국과 같은 한국에서 지옥 같은 이곳으로 온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드린다. 오늘 미사는 여러분께 봉헌한다는 의미"라며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드린다. 여러분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교황은 각 종교계에서 마련한 선물과 그에 담긴 의미를 들으며 감사를 전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친필 사인이 담긴 중요무형문화재 백산 김정옥 선생의 다기를 전달했으며 천주교는 한국 전통 공예 인형을 선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도자들을 비롯해 수행단 전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묵주를 건네며 악수와 환한 미소로 축복을 빌었다.

한편 이번 순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 김현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동참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 동국대 5000만 원 기부

9월 19일 남해 성담사서 전달
불교학술원 위해 거액 '쾌척'



조계종 제13대 · 제14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가 불교학 진흥을 위해 동국대에 거액의 기금을 쾌척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9월 19일 주석처인 경남 남해 성담사에서 동국대에 기부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기부금은 대종사의 뜻에 따라 동국대 불교학술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승대덕 스님들의 디지털 법어집을 구성하고 있다. 진제 대종사는 올해의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돼 이를 계기로 동국대에 기부를 결심했다.

이날 진제 대종사는 "불교종립대학 동국대가 이번 〈중앙일보〉 평가에서 9위를 하는 등 크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3대 사학의 위상을 찾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모두 마음을 모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에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지난 10년간 한국불교를 종정으로서 이끌어주시고, 꾸준히 동국대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를 통해 동국대가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법원, 법화종 안정사 불법점유 인정

창원법원 통영지원, 9월16일 결정
이재열(승헌)·김연기(호암) 등에
"주지스님 운영·관리 방해 말라"
종무 금지 등 집행관 공시결정


안정사 전경.

법화종 총본산 안정사가 종단 정상화 이후 공식주지 임명에도 일부 해종세력들의 불법점거 및 재산멸실 시도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종세력의 사찰 장악행위를 불법으로 확인하고 업무 방해금지를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스님이 정식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前재산관리인)의 정당한 사찰관리 및 운영 권한을 인정하고, 이재열(승헌, 前주지), 김연기(호암, 前주지)를 비롯해 이들의 지시를 받은 제3자의 업무방해 행위를 원천 금지토록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안정사가 법화종 총본산으로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는 9월 16일 안정사와 총무원이 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이 前주지 이재열(승헌, 체탈도첩), 김연기(호암, 승적 없음)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재열 · 김연기 씨에 대해 안정사와 주지 원담 스님의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해선 안 되며 집행관은 해당명령의 취지를 공시토록 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방해금지 항목에 따르면 △사찰 기부금 등 금품 수령, 예치 및 비용집행에 관한 행위 △사찰 명의 예금통장, 신도카드와 주소록 일체, 공과금 납부 관련 일체, 임직원 현황 및 임금 지급내역 일체, 재산목록과 회계 장부를 비롯한 장부 일체 등 채권자(안정사 · 주지 원담 스님)가 안정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료의 관리 · 작성 · 보관 행위를 등 종무행위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안정사 소유 문화재 일체에 대한 이동 · 관리 · 보관에 대한 방해 행위는 물론, 안정사 소유 동산을 사찰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안정사는 전통사찰로 보물 제1692호 영산회괘불도, 보물 제1699호 동종,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83호 통영안정사연, 삼불회도 등을 보유한 사찰이다.

재판부는 또 이재열 · 김연기 씨는 안정사의 대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안정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해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안정사 소유 부동산 등에 출입 ·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18대 중회의원 선거…교구10곳 경선·14곳 무투표

9월 22일 후보 등록 마감
81명 선출에 94명 출사표
직선직 14개 교구 무투표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전체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10곳에서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4개 교구본사의 경우 2인 선출에 2인이 후보등록함에 따라 투표 없이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당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가 9월 22일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접수를 마감한 결과, 81명 선출에 총 94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본사당 2인 의원을 선출하는 교구본사 가운데 10곳에서 경선이 예상된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종봉 · 제민 · 태진 스님이, 제14교구본사 범어사는 석산 · 도림 · 범종 스님이, 15교구 통도사는 진각 · 보화 · 진무 스님이, 16교구본사 고운사는 도륜 · 등안 · 혜산 스님이, 17교구 금산사는 화평 · 각진 · 원묵 스님이, 21교구본사 송광사는 진경 · 일화 · 시공 스님이, 제24교구본사 선운사는 태효 · 재안 · 도정 스님이 후보로 나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종회의원 3명을 선출하는 제10교구본사 해인사의 경우 응관 · 학암 · 불암 · 향록 · 제정 · 종인 스님 등 2배수인 6명이 후보 접수했으며, 4명을 선출하는 직할교구는 효명 · 종원 · 진우 · 도심 · 탄웅 스님이 출마해 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의 경우 애초 3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나, 이 중 선안 스님이 사퇴해 선광 · 호암 스님이 투표 없이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교구본사는 14곳이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탄탄 · 덕운 스님,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우송 · 삼조 스님,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해량 · 설암 스님,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주경 · 정범 스님, 제8교구본사 직지사는 묘장 · 현무 스님, 13교구 쌍계사는 지현 · 현담 스님, 18교구본사 백양사는 만당 · 석장 스님, 19교구 화엄사는 대진 · 연규 스님, 22교구 대흥사는 설도 · 향문 스님, 12교구본사 봉선사는 보관 · 혜공 스님이 후보 등록했다.

이들 교구본사들은 2인 의원 선출에 2인 출마로, 선거 없이 자격심사를 통과할 경우 당선 확정된다.

10개 직능분야당 각 2인씩, 총 의원 20인을 선출하는 직능대표 분야에는 모두 21명 후보가 출마했다. 보인 · 경암 · 법원(직할) · 진화 · 가섭 · 우석 · 덕현 · 진각 · 무관 · 오심 · 심우 · 탄원 · 원명 · 현담 · 우봉 · 법원(대흥사) · 성웅 · 각연 · 법성 · 원각 · 무경 스님으로, 사퇴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10월 10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비구니의원 10인 후보는 진상 · 철우 · 법해 · 설해 · 정운 · 혜도 · 정관 · 지인 · 혜성 · 진명 스님으로, 전국비구니회 비구니의원 후보 선출을 통해 확정된 10인이 변수 없이 접수됐다. 비구니의원 후보 역시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당선 확정된다.

한편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3일 각 교구본사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 회의를 열어 종회의원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제68회 백제문화제 한류원조 백제의 빛과 향

BAEKJ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백제 부여불교 수륙대재

2022. 10. 8(토) 10시 괘불이운(정림사지 특설무대)
14시 법요식(정림사지 특설무대)
18시 수륙고혼천도의식(백마강 구드래 나루터 일원)

• 조상 선망부모 합동 천도 위패 접수 - 영가 1위당 10,000원
• 가족 유등 접수, 가족 유등 10,000원 - 등에 가족 이름 올림

농협 301-0190-7482-51 (예금주 : 부여불교사암연합회)
동참문의 : (041)835-2066, 010-4230-5553

주최 부여불교사암연합회 및 신도회
주관 백제부여불교수륙대재보존회
후원 충청남도, 부여군, (재)백제문화제재단

